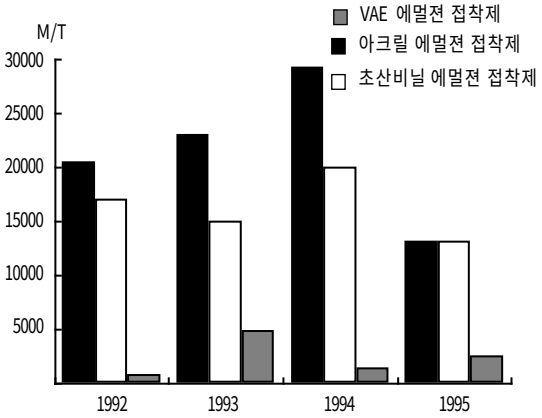
에멀젼계 접착제 예상밖 침체

가격경쟁 및 후방산업 부진으로 … 환경친화적 장점도 무위

국내 에멀젼계 접착제 시장의 성장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에멀젼접착제 수요는 6만1500톤으로 94년 6만2070톤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멀젼접착제 시장을 이끌어온 아크릴에멀젼 접착제는 95년 1만3186톤이 생산돼 94년 2만9170톤 대비 55% 감소했으며, 초산비닐에멀젼 접착제는 95년 생산량이 1만3060톤으로 94년 1만9940톤에 비해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멀젼계 접착제는 수용성접착제로 사용이 간편하고 유기용제형 접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주목 받았으나, 이런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관련산업의 부진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멀젼계 접착제 생산추이



아크릴접착제는 주로 도료, 제지, 섬유, 플래스틱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초산비닐접착제는 목재기구 및 제지에 주로 적용되는데, 이들 산업이 모두 부진을 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에멀젼계 접착제는 생산방법이 간단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크릴계 가격은 Kg당 1000~1500원으로 95년초 20% 상승한 이후 계속 정체되고 있으며, 초산비닐에멀젼은 Kg당 1000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비해 원료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97년1월부터 에멀젼접착제 시장이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돼 국내외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협소한 시장에 상당한 혼전이 예상된다.
특히, 95년 순간접착제 생산을 포기한 바 있는 SKC가 에멀젼접착제 신규진출을 표면화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인 BASF도 아크릴계 쪽으로 시장공략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의 생산기업과 대기업, 다국적기업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아크릴에멀젼 접착제는 합동화학이 25%, 음이온고분자와 대원폴리머가 각각 20%, 외국기업이 25%, 기타가 10%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VAE에멀젼계 접착제 시장은 95년 2480톤이 생산돼 전년대비 6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VAE에멀젼 접착제는 태영화학과 대만의 다이렌이 각각 50%, 35%의 비율로 공급하고 있으며, 15%는 미국의 Air Product가 공급하고 있다.
VAE에멀젼 접착제는 PVC필름용 40%, 건축용 22.5%, OPP라미네이트용 19%, 기타 18.5%의 비율로 이용되고 있는데, 95년부터 시작된 건축물 개·보수작업에 상당량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6/9/9.16>